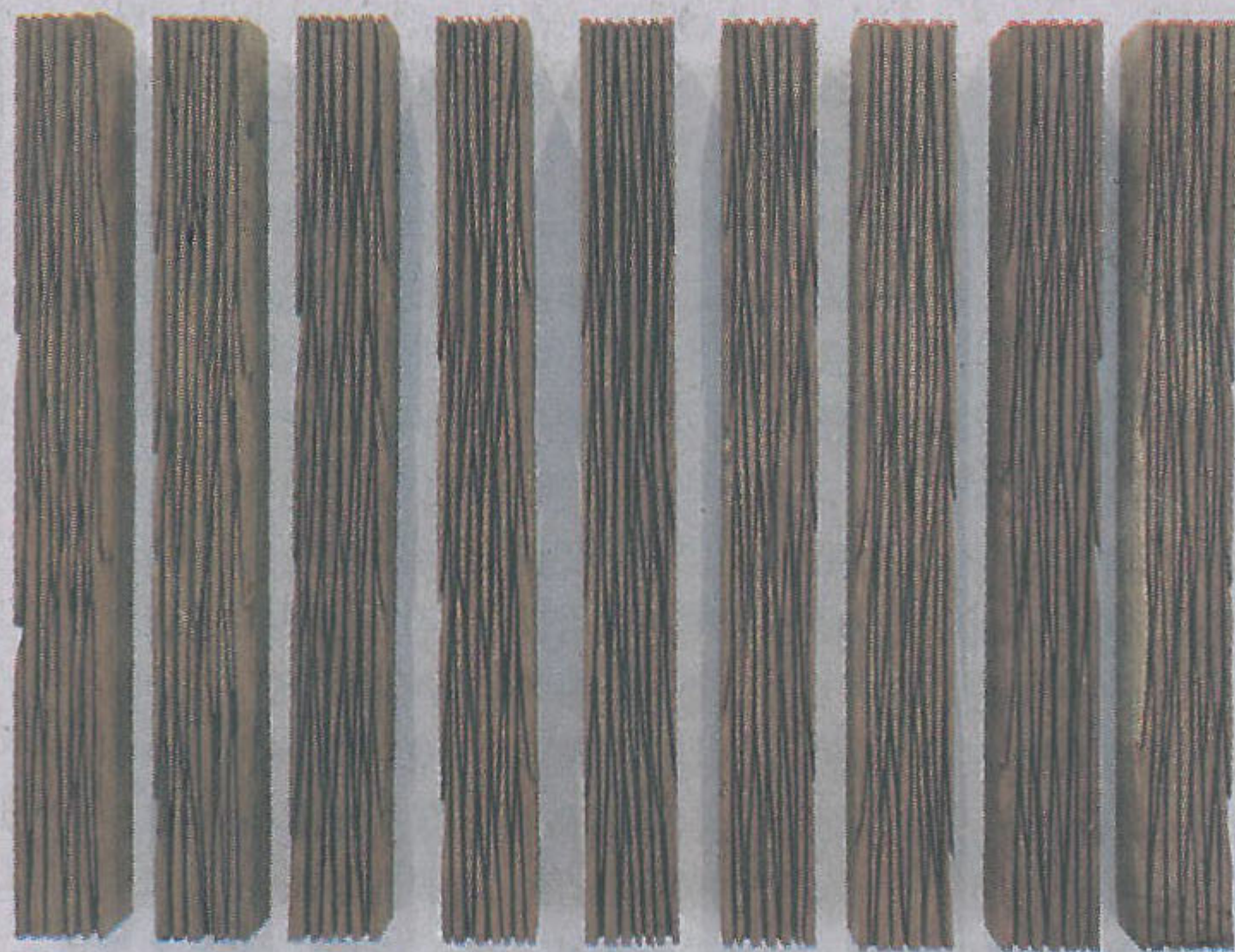


## fnart 와 함께 하는 그림산책



데이비드 내시 'Red Wall'

## 죽어서도 생명을 간직한 나무

“나무의 수명 주기는 인간의 수명 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들을 지나며 깨어 있거나 잠을 잔다. 나무들은 자신들의 형태를 통해 시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영국 조각가 데이비드 내시(69)는 나무로 시를 쓰는 철학자다. “평생 나무로부터 배우고, 나무를 경험하고 느껴가는 것이 내 작업”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나무는 친구이자 연인이자 스승이다.

그는 오직 기후나 질병에 따른 이유로 버려진 나무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나무를 오랜 시간 건조한 뒤 나무 본래의 색깔을 잃었으면 잃은 대로, 균열이 생겼으면 생긴 대로, 가지가 휘었으면 휘는 대로 작업을 한다. 작가인 그가 하는 일이란 나무 본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거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하는 정도다.

그는 또 재료로서의 나무(wood) 뿐 아니라

나무(tree) 그 자체에도 관심이 많다. 그와 인연을 맺게 된 나무가 처음 생겨난 곳은 어디이며 어떻게 자신에게 오게 됐고, 지금의 모양과 형태는 왜 생긴 것인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결국 그의 작업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인 나무와 대화하고 교감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데이비드 내시가 7년 만에 국내에서 펼치는 이번 전시에는 나무 외에도 브론즈를 이용한 신작과 종이 작업 등이 포함됐다.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성 중 하나인 나무 표면의 드라마틱한 절개 방식은 여기서도 그대로다. 그는 종이 작업에서 주로 참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이 드로잉들은 참나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포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나무로 만든 조각 작품을 떠올리게 해 묘한 느낌을 준다. 전시는 25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02) 735-8449

ism64@fnnews.com 정순민 문화스포츠부장